

비리 복마전, 부끄러운 미술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심사위원 선정방식부터 바꿔야

지역 미술계 공모전 비리 여지 상존
신예작가 추천전 등 발상전환을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 선정 비리와 관련, 광주·전남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미술 공모전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공모전에서도 수상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사위원 구성이나 공모전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미술인들은 우선 현재 광주시전과 전남도 미술대전 등 주요 공모전에서 채택하고 있는 심사위원 선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심사위원을 배정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작가는 물론 학연 등 연고가 있는 인사를 전면 배제하고 타 시도 출신 미술인이나 전문가들에게 심사를 맡겨 심사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전과 전남도전, 무등미술대전 등 주요 미술대전은 40~50명의 심사위원을 배정, 작품을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위원 대부분이 지역 미술인이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수상작 선정과 관련, 언제든지 로비나 비리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한 미술대학 교수는 "지역이 좁은데 미술인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누구의 작품인지 쉽게 알 수 있어 솔직히 심사할 때 불편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광주미술과 전남예총 등 미술대전 주관단체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미술대전 운



최근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비리가 불거진 가운데 지역 미술계를 중심으로 공모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경찰관들이 미술대전 수상작을 입상자 도록과 대조하고 있는 모습.

영을 별도의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모전 운영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심사위원 배정, 수상작 선정에 대한 투명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기획전시, 아트페어 등 신예작가들의 등용문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미술대전을 유망 신예작가 초대전이나 기획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술평론가 최병식(경희대 미대) 교수는 "공모전에 출품할 단 한 점의 작품으로 작가의 역량을 평가하는 현행 방식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거쳐 선발된 작가들에게 전시회를 열어 줌으로

써 지속적으로 작가의 역량을 평가하는 영국의 '터너 프라이즈' 같은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술인들과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공모전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은 물론 일반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가들의 경우 공모전을 통해 하루 아침에 이름을 얻는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세자매와 주변인들의 삶과 갈등을 묘사한 작품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반인들도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나 각종 공모전 입상경력으로 단순히 작가의 서열을 정하려는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 여름밤 플루트 앙상블

타파넬 23일 전남대 예술대...백예 24일 광주문예회관

다양한 플루트 곡들을 감상할 수 있는 연주회가 잇따라 열린다.

타파넬 플루트 앙상블(리더·지휘 황성규)은 23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예술대 연주홀에서 13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연주 곡목은 도플러의 '리글레토 환타지', 드보르작의 '세레나데 작품 번호 22' 등으로 변성호·배혜경·백영경·박지혜씨 등이 무대에 오른다.

제7회 백예플루트앙상블(단장 백홍승) 정기연주

회는 24일(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과 25일(오후 7시30분)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다.

현 도쿄 스기나미 윈드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가토 아츠시가 지휘를 맡은 이번 공연 레퍼토리는 라벨의 '죽은 황녀를 위한 파반느', 레스피기의 '모음곡', 드보르작의 '슬라벤스 작품46-3',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제피터' 등이다. 문의 011-623-449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대 연극모임 '버즈', '세자매' 무대

호남대학교 다매체영상학과 연극 전공자들의 모임인 '버즈'가 안톤 체홉의 대표작 '세자매'(연출 박미희)를 무대에 올린다. 26일까지(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 호남대학교 상촌캠퍼스 소극장.

'세자매'는 포병 여단이 주둔하는 어느 지방 도시를 무대로 여단장이었던 아버지의 죽은 뒤에 남겨진 세자매와 주변인들의 삶과 갈등을 묘사한 작품으로 안톤 체홉의 '4대 희곡' 중 한 작품으로 꼽힌다. 출연자는 박지원·김나리·정현·김필미씨 등이 다. 문의 062-370-82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올해의 작가展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김영태 산뜻한 색채 인상파 화풍

양계남 세필 묘사 돋보이는 채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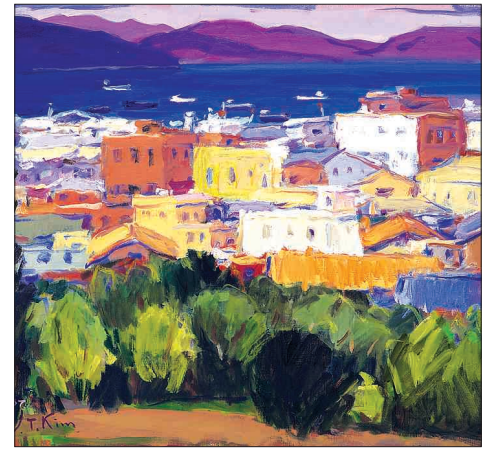
2007년 광주시립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김영태(서양화), 양계남(한국화)씨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시립미술관 본관 1층 전시실.

김영태씨는 조선대미대 1회 졸업생으로 팔순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왕성한 창작욕을 선보이고 있는 작가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평생 추구하고 있는 인상파 화풍의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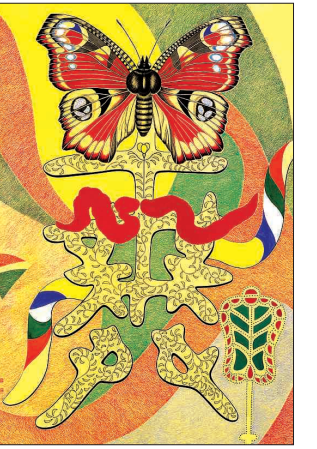
산뜻한 색채로 무등산, 여수, 안도 등 남도의 정겨운 풍경을 묘사한 작품과 해외 풍경 등 50여점을 전시한다.

그는 1967년 '광주 일요화회'를 창립하여 1977년까지 회장 겸 지도교수를 역임하면서 미술 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의재 허백련 선생의 제자인 양계남(조선대 미대) 교수는 초기 서군자를 화풍에 담았으나 화풍의 변화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90년대 이후 작품



김영태 '마량항 풍경'



양계남 '내 영혼 불이 되어'

50점을 전시한다.

정교한 세필 묘사가 돋보이는 채색화와 전통 수묵화, 종교적 색채가 배어있는 작품 등 다양한 작업세계를 한 곳에 모았다.

이번 전시는 양 교수의 작품세계를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첫 번째 대

규모 전시다. 그는 주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개인전을 가졌기 때문에 광주에서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적었다. 양 교수는 조선대에서 후진을 양성함으로써 남도화단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문의 062-525-096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52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합주제

- 1 이지선의 40명(여도)
◇ 관현악합주(국악, 초등부)
▲ 최고상
1 김현수와 75명(광양제철남)

- 심사위원
이형석(전남대 교수)
임흥규(광주시향 부지휘자)
이태백(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장·목원대 교수)

합창제

- 심사위원
김성국(광주교육대 교수)
변 옥(광산대 교수)

- ◇ 관악합주(초등부)
▲ 최고상
3 이민아의 61명(광양제철)
▲ 금상
1 임영민의 53명(광주중흥)
▲ 은상
2 김혁의 35명(나주)
◇ 관악합주(중등부)
▲ 최고상
1 우정효의 61명(광주동성여자)
◇ 관현악합주(초등부)
▲ 최고상
1 정민선의 65명(광주송원)
◇ 관현악합주(중등부)
▲ 최고상

그룹사운드 페스티벌

- 심사위원
이은철(전남과학대 교수)
이준희(라발전협의회 광주지회장)

- ▲ 최고상
6 유정현의 For-1(송신공업고)
▲ 금상
3 김광영의 홀리스피릿(금과공업고)

- 4 신재홍의 러쉬(송원고)
9 이수연의 MONOCASE(광주중앙여자고)

- ▲ 은상
1 김성우의 홀리데이(상무고)
8 양우연의 블라인드(대동고)
▲ 동상
2 윤지훈의 Root.M(목포마리아회고)
5 이승현의 엑시드(대동고)
7 김진혁의 하랑(동성고)

* 최고상 수상 학교는 컬러 단체사진 2매를 5월 28일까지 본사 문화사업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Advertisement for movies and Happy Time, featuring film strips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Megabox cinema, listing movie titles like '加勒比海的冒险'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Enter Cinema, listing movie titles like '밀양' and '못말리는 결혼'.

Advertisement for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 titles like '넥스트' and '전설의 고향'.

Advertisement for Mudeung극장, listing movie titles like '스파이더맨' and '못말리는 결혼'.

Advertisement for Zeil Cinema, listing movie titles like '加勒比海的冒险' and '스파이더맨 3'.